서울 택시요금, 내년 언제쯤 오를까

기본요금·거리요금 등 오른 인상안 의회 통과
인상요금 실제 적용 시기와 실제 금액 가변적
인상안, 성난 택시업계 달랠 카드로 활용 가능

서울 택시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요금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택시 관련 시위가 격화되는 등 택시를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실제 인상 시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

서울시 원안 중 일부 내용이 조정됐지만 '택시업계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꾀한다'는 요금 인상 기조는 대체로 유지됐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km당 3000원에서 800원 오른 2km당 3800원이 될 전망이다.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중형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2km당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시간은 0시에서 새벽 4시로 유지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km당 5000원에서 3km당 6500원으로 오른다. 거리요금은 164m당 200원에서 151m당 200원이 된다.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에서 36초당 200원으로 오른다. 기존대로 대형·모범택시에는 심야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당시 택시요금 인상 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 안이 서울시의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이달 26일 열릴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한다. 물가대책위가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검토를 거쳐 택시업계에 요금체계를 제시하게 된다. 이후 택시회사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요금 범위 안에서 실제 고객에게 부과할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 중순께 서울시민이 인상된 택시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갈수록 격화되는 정부와 택시업계의 충돌이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카카오 카풀 사태'로 인한 택시기사 분신 사건 등으로 택시업계는 격앙돼 있다. 개인택시기사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주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기사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계획 역시 택시업계 달래기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시 실무진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 시장과 정무라인이 정부와 택시업계의 움직임에 맞춰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계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를 빛낸 서울시 스포츠 영웅 800명 한자리에

세종대 컨벤션센터서 2018 서울시 체육인의 밤

서울시는 17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2018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를 열고 올 한해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한다.

서울시 체육인의 밤은 장애인·비장애인 체육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2015년 처음 열렸다. 올해는 역대 최대 인원인 8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임직원과 회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와 지도자 등 서울시체육 분야 유공이 있는 서울시장 표창 85명,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28명, 서울시체육회장상 13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체육 유공자 표창이 수여된다.

장애인 분야 수상자는 올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사이클에서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한 황계현 선수, 평창패럴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 동메달 이지훈 선수 외에 우수선수와 지도자, 그 외에 자원봉사 등 53명이다.

비장애인 분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태윤 선수(서울시청)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펜싱 플뢰레 종목에서 개인전 2연패를 달성한 전희숙 선수(서울시청),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한 지도자 등 191명이다.

전희숙 선수

이번 행사에서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서울시 체육인들의 염원을 담은 기념행사가 열린다. 전국체전 홍보대사 신수지씨도 함께 한다.

식전행사로 자폐 학생을 중심으로 한 바이올린 솔로와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로 구성된 트리오 연주가 펼쳐진다. 식후 행사로는 국내 남성 재즈 보컬리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윤덕현 밴드가 공연한다.

시민 뽑은 서울시 10대뉴스
2년 연속 1위 '따릉이' 선정

주요정책 온·오프라인 투표…14만2016명 참여

올해 시민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4만2016명을 대상으로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수는 28만5400표였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만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따릉이는 올해 누적 회원 수 100만명을 돌파(총 117만명)했으며 대여건수 1632만여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이 1번 이상 이용해본 셈이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무인 대여 사업이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거단지 등 시민생활권 내 곳곳에 대여소(1540개소)가 설치돼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모든 대여소 상호간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따릉이는 지하철역사, 청소년 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등 대중교통 연계 지역과 시민 생활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4만대로 확대된다.

2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1만7074표, 6.0%)이 차지했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감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노후 경유차에 저공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대기오염 예·경보,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해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공동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1만6621표, 5.8%)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1회용품(기저귀) 구입비의 월50%(월 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위해 '이룸통장'을 통해 본인이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준다.

4위는 서울 밤의 대표 명소로 떠오르며 올해 428만명이 찾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1만3333표, 4.7%)이 차지했다.

이어 메르스 대응(5위 4.6%), 가족의 삶과 밀접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6위 4.4%), 청년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7위 4.3%), 플라스틱 없는 서울(8위 4.1%) me,too(미투)운동에 대응해 추진하는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9위 4.0%),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10위 3.8%) 등 정책이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이나 네이버와 다음에서 '서울시 10대뉴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2~23일 서울시 출입기자를 대상(66명 참여)으로 10대 뉴스 현장투표를 실시한 바 언론에서 주목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2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제로페이 서울(21표, 10.4%)이었다.